



이 자 영 | EDAM 공간연구소 실장
(ljj333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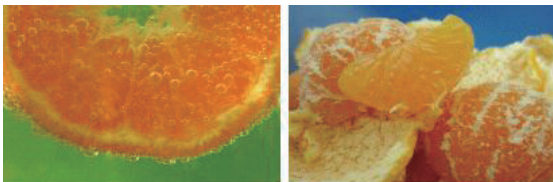
굴과 물에 대한 단상

물은, 도시의 비타민 C

'땀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

이왕이면 누런 황금빛에 약간의 초록을 머금은 놈이 좋겠다. 거기다 윤기 나고 껍질까지 얇으면 제대로 고른 것이겠다. 굴을 먹을라치면 먼저, 굴을 까는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손톱의 날을 90도로 세워 살짝 눌러주면, 굴의 껍이 손톱 속으로 베어 들어가고, 동시에 공기로 퍼지며 코와 목구멍을 자극한다. 그리고 굴은 이내 탱글탱글한 속살을 보여준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굴과 같은 신맛을 땀겨 한다. 특히나, 추운 겨울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굴을 겨울에 선물해주고 있다. 내몸이 나도 모르게 '땀기는 것'도 자연의 섭리요, 자연이 계절에 따른 제철 먹거리들을 제공해주는 것 역시,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자연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이치에서 생각해본다.

인간은 왜, 물을 좋아할까?

왜, 우리는, 인간은, 물을 좋아할까? 바닷가에 맨발로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맞는 상상만으로도, 숲속 계곡가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물에 손을 적시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진다. 인간은 늘 그렇게 떠나고 싶다. 이왕이면 물이 있는 곳으로... 또한 필자는 대학시절 스위스 융프라우 설산에 오른 경험이 있는데, 온통 하얀 그곳에서 눈발위로 나자빠졌던 그날의 상쾌한 아이스크림 공기와 눈의 촉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곳에 매일 갈 순 없지 않은가.

대신,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다! '짜아' 하고 쏟아지며 건강하게 귀를 자극해주는 물소리와 몸 위로 쏟아져 내리는 상하수도 시스템의 촉복 속에서, 하루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갤러리

내 묻혀온 오물과 딸려온 잡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호강을, 우리는 사실 매일 누리고 있으며, 그

래서 매 순간 “땡큐!”를 연발하고 살아야 함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켜볼 일이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 1) 그것은 자연의 시스템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인간이 물을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건대, 겨울에 땡기는 굴처럼, 물이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인체의 생물학적 특성상, 물이 물을 땡겨하는 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마치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



지는 호르몬의 시스템과 같이, 이 역시 자연의 시스템이며,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면 인간은 분명 부작용을 겪게 된다는 것 역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 2) 의학적 도움을 주는 물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음이온 치료'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쥐에게 실험한 결과, 음이온을 마신 쥐는 혈행의 개선, 젖산 수치 하락,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경감, 숙면과 pH 수치의 개선은 물론, 수명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무덤에서 진시황이 벌떡 일어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수치적인 데이터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물을 만날 때 얻는 정신적 경쾌함만으로도 치유의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차원의 치유’가 중요한 지금, ‘물가로 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 3) 이상향을 품음으로써 얻는 정서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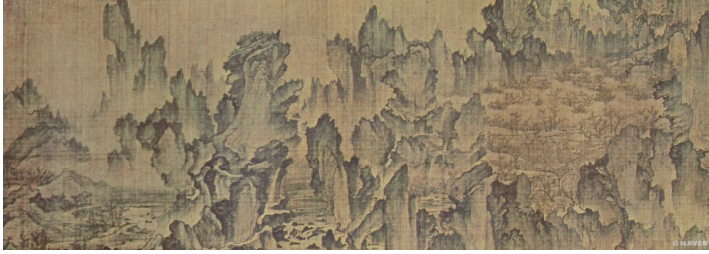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낙원, 천국, 이상향 등등을 떠올릴 때 물을 빠지지 않고 그려왔다. 이상향을 그린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자.



왼쪽 그림은 그림에 문외한이라도 한번쯤 본 적 있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다. 비너스가 탄생하는 곳이자 그림의 주요 배경으로서 물을 그려 넣고 있는데,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운다는 맥락에서 ‘물은 대개 ‘젖’, 즉 ‘생명’이라는 의미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를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유럽의 역사 이해를 위해 잠깐 성경을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생을 위해 값없이 와서 ‘생명수(水)’를 받으라” 등 ‘물은 이상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그 자체로 생명을 상징하는 은유의 장치로서 자주 이용되었던 것이다.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풍경’이란 제목의 클로드 로랭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즐겁고 이상적인 장소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 또한 유럽 정원의 역사를 공부해봐도 물의 중요성은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고 있다.

한국화에서는 몽유도원도가 대표적이다.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꿈에서 무릉도원을 봤다는...)을 그린 파노라마 작품인데, 그림은 꿈 이야기를 더듬어가며 4개의 구도를 갖는다. 맨 왼편에서부터 시작되어, 1단계는 현실세계를, 2단계는 도원(桃源)의 입구(入口), 3단계는 중간경치, 4단계는 끝으로 꿈에 배를 보았다는 도원(桃源)의 선경(仙境)이다. 도원은 이상향, 낙원의 다른 말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물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이기에, 물과
의 접촉은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
이다.

우리집에서 자연의 물까지 거리 분석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물
을 접촉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한동안 계획가들은 도시나 택
지를 조성할 때, 물을 없애려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물위에 도
로를 만들어 덮어버리거나, 작은 실개천과 개울들을 없애고

하나의 물길로 만들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홍수의 위험도 있고, 다리를 내야 하는 경제
적 이유 등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건 결
국 인간에게 불행이었다. 도시는 건조해졌다.

먼저, 내가 사는 동탄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집에서 얼마를 가야 과연 '자연의 물'
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내가 사는 곳
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도시 중앙에 넓은 센
트럴파크가 자리하고 있고 동탄 거의 모든 아파트의 지상에는
차가 없고 공원으로 채워져 있어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
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집은 작은 산 옆이라 공기가 좋고 조용
하다. 다만, 물을 만나려면 좀 수고스럽다. 공원에 설치된 분
수와 벽천 및 연못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없기도 하므로, 자연
의 물, 즉 저수지나 호수, 실개천이나 강을 기준으로 따져보았
다. 먼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의 물은 노작골의 오산천이
었는데,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해 따져보니, 자동차로는 약 15



분이 걸렸으며, 버스로는 25분, 자전거로는 약 12분, 그리고 걸어서는 무려 43분이 걸렸다.

43분이 걸린다면, 도보로는 사실 엄두가 안 난다. 어린 아이라도 데리고 갈려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자전거는 12분이니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가는 길도 산과 공원을 통해 직진하다 한 번 우회전하면 되는 쉬운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심에서 의 자전거 통행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다. 보도는 울퉁불퉁하고 좁고, 자전거도로는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사의 변화도 많다. 그리고 비가 오면 타기 곤란하다. 또한 자전거는 건장한 일반인의 이야기지, 노약자라면 역시 차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빨리 갈 것이다.

자가용이 있다면 15분이 소요된다. 목적지 부근에서 주정차 장소를 찾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다. 버스를 이용한다면 25분이다. 그러나 이 25분에는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얼추 40분은 잡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 우리 도시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집에서 자연의 물까지 가는 길이 수치적으로는 짧을지 몰라도, 실제로 찾아가는 여정은 불편하고 귀찮은 길인 것이다. 그냥 안가고 말지 뭐.

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

그래서 내가 만약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슬로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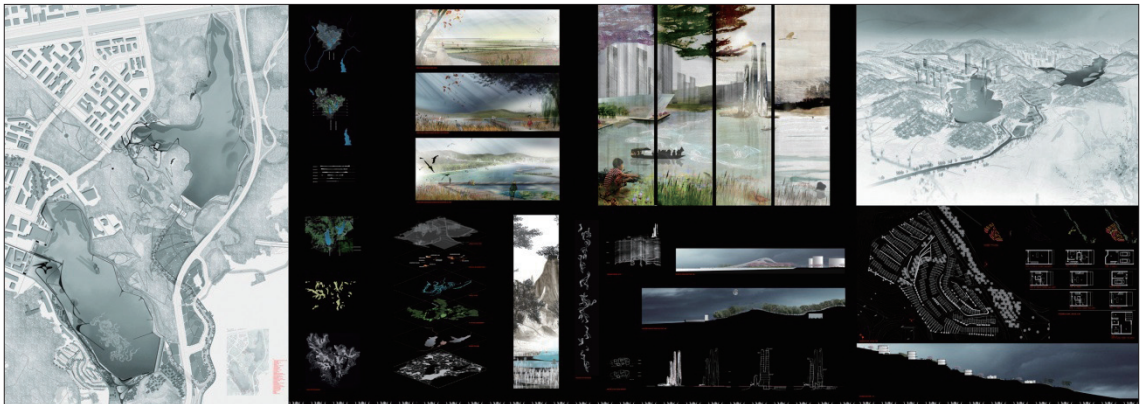
“주민의 약 90%가 9분내 자연의 물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을!!!”

듣는 사람도 쉽고, 계획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고 좋지 않은가. 단, 조건이 있다. ‘도달하는 방법’이 쾌적하고 누구나 쉬워야겠다.(즉, 대중교통이어야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트램도 좋고 안전하게 시스템화된 자전거도로도 좋다. 중요한 건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설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 적용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로 갈 때가 가장 편하고 빠르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으로 자전거, 보도, 자동차 이렇게 순위를 바꾸면 어떨까. 그 동안 우리 도시는 중장년층 남성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왔다. 이제는 유모차를 끄는 애엄마들과 아이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이렇게 하면 장애인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터. 더불어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인들을 배려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바꾸어야 함은 두말 할 것 없다.

다행히 최근의 도시설계들을 보면, 물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광고신도시 공모작들을 보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물을 중요한 도시설계의 중심점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물에 접근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 주변 자체는 조경가의 몫이겠지만, 접근 시스템은 교통과 도시, 도로, 환경 등 전문가들과 정책가 및 공무원 그리고 투자자들과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왼)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트램, (가운데)자전거도로 (오른)보행자 전용 육교



광교신도시 국제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맨 위가 당선작이다. 모두 물을 중요하게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도시나 다 이렇게 큰 호수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해안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슬로건을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동네 골목길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집밖으로 나가면 만나게 되는 '또랑', '시냇물', '실

개천'을 있는 그대로 놓거나 복원하면 어떨까. 거창한 물가로 가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물' 역시 '자연의 물'이니까.



일본 오카야미현 다카하시, 쿠라시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도심의 작은 물길들이 얽혀있는데, 집집마다 물길로 둘러싸여져 있다. 집을 나서면 바로 물길을 만나는 것이다. 물길은 필요에 따라 판을 덧대어 보행에 불편을 없애고 있다. 그리고 이 또랑들이 흘러 들어 마을 중앙의 하천으로 모인다. 하천은 돌로 축조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형성된 하천의 녹지들은 청량감을 더한다. 또한 하천변 휴게소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역할하며, 곳곳에 물로

접근하기 쉬운 계단들이 있는데, 배를 타기 위함이다. 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다.

물은 도시의 비타민 C. 우리 몸과 영혼엔 지금 비타민 C가 절실하다. 땀기는 대로, 또랑도 괜찮고 저수지도 좋으며, 호수면 더할 나위 없겠다. '물과 함께 흐르는 자연스러운 도시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